

천하제일경 향일암 일출... 임포의 밤바다는 더 아름답다



향일암 마을 인 임포마을은 금오산에 안겨 다도해를 조망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여수 관광명소로 꼽힌다.

여수의 상징 '향일암 마을' 푸르른 금오산·돌산바다·붉은 해 한쪽의 그림
둘레길 조명 설치·동백숲에 벤치 만들고 바닷길 단장해 머무는 관광지로

여수는 어느 순간 '밤바다'의 도시가 됐다. 화려한 조명에 물든 여수의 밤바다는 낭만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을 발길을 잡는다. 하지만 그 이전에 여수에는 사람들이 부르던 아침 바다가 있었다. 아침 햇살이 붉게 부서지던 여수의 바다. 사람들은 아침 바다를 보기 위해 사시사철 향일암이 있는 여수로 달려오곤 했다.

여수의 상징이었던 향일암을 품고 있는 임포마을, '향일암 마을'이 또 다른 봄날을 기다리고 있다. 같은 여수 바다지만 임포마을의 바다 풍경은 다르다.

도심에서 보는 바다에는 흥겨움과 낭만이 어우러져 있다면, 향일암을 끼고 있는 이곳의 바다에는 깊은 울림이 있다. 반짝이는 드넓은 다도해를 내려다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금오산을 휘어 감은 바람이 코끝을 스치고 가면 잔잔하게 마음에 파도가 일어난다.

같은 여수지만 전혀 다른 곳에 온 듯한 느낌이다.

부지런한 이들에게는 천하제일의 일출도 보여준다. 새해가 되면 전국에서 가장 분주한 곳 중 하나가 향일암(向日庵)이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특별한 일출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 새해 아침 부지런히 향일암에 오른다.

돌산도의 끝자락 금오산의 기암괴석 절벽에 자리한 향일암은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 도량이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소원을 빌면 하나는 이뤄준다는 곳. 이곳에서 새롭게 떠오른 해를 맞이하는데 한 해가

어찌 특별하지 않을까?

신라의 원효대사가 선덕여왕 때 원통암(圓通庵)이란 이름으로 창건한 암자는 고려 시대에는 금오암(金鰲庵)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조선 숙종41년(1715년) 남해안의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는 해돋이 광경의 아름다움을 담아 인목대사가 향일암이라 명명했다.

천하제일의 풍경을 쉽게 접할 수는 없다. 주차장을 지나 가파른 돌계단을 한참 걸어 올라가야 한다. 바다와 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에 빠져 부지런히 걸음을 하다가, 숨이 차오를 때쯤 거대한 석문(石門)을 만날 수 있다. 잠시 숨을 고른 이들은 남녘노소, 직업을 떠나 거대한 자연 앞에서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린다. 몸을 낮추고 석문을 통과해야 부처님께 이를 수 있는 길, 사람들은 겸손하게 번뇌를 내려놓는다.

석문을 지나 다시 돌계단을 오르며 뒤로는 금오산, 앞으로는 돌산 바다가 안긴다. 푸른 산과 바다 그리고 붉은 해가 한 폭의 그림이 된다.

향일암은 2009년 화마에 휩싸이면서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지만 추억을 더듬어 화재 후 모습을 보기 위해 걸음을 한 이들이 많았다.

임포마을의 일출도 특별하지만 달이 떠 있는 이곳의 밤바다도 아름답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천천히 여운 가득한 밤바다를 만나고 싶은 이들에게는 임포마을이 더없이 좋다.

이곳은 동백꽃도 특별하다. 동백꽃 하면 오동도가 먼저 떠오르지만 돌산도도 동백

꽃 명소다. 남쪽 끝자락의 임포마을에는 동백나무가 가득하다. 향일암으로 가는 산비탈에도 동백숲이 펼쳐져 있다. 태양의 정기를 고스란히 받은 동백꽃은 때가 되면 붉고 탐스러운 자태를 뽐내며 사람들을 유혹한다.

부지런한 걸음으로 향일암을 다녀와서는 맛깔나는 여수를 만나야 한다. 어획량이 부족 줄어서 고민이지만 삼치, 병어가 이곳 바다에서 파닥거린다. 돌산 갯김치는 설명이 필요 없다. 푹 쏘는 갯김치와 시원함이 더해진 물갯김치는 조림에도 회에도 어떤 음식에도 잘 어울린다.

갯김치 맛을 보고 그냥 돌아갈 수는 없다. 집까지 직접 들고 가지 않아도 된다. 요즘은 택배로 편하게 갯김치를 사서 보낸다. 마을 주민들도 먼 길을 온 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는다. 넉넉한 인심을 담아 한 움큼 더 짝짝 눌러 담아 아무렇게 포장해 준다.

2012년 엑스포가 열리면서 여수는 빠르게 변했다.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여수 밤바다'도 변화의 바람을 거세게 했다. 여수 해상 케이블, 낭만 포차 등 여수는 화려한 관광지가 됐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향일암에 이르지 않았다. 예전 모습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해돋이의 명소다. 한편으로는 멈춰버린 시간이 이곳 주민들에게는 큰 고민이다.

여수 관광지의 중심이었던 향일암은 스쳐 가는 관광지가 되고 말았다. 주말에는 특히 더 그렇다. 일찍 향일암을 다녀간 이들은 화려한 불빛과 행사가 있는 시내로

속속 빠져나간다.

76세대 150명. 고령화로 어업 인구도 많이 줄면서 관광업이 주가 된 만큼 달라진 관광 지도가 임포마을의 고민이다.

김경식(58) 임포마을 어촌계장은 "예전 보다 차량이 많이 들어오지만 식당, 숙박업에 큰 도움은 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농사 이런 곳이 아니다. 고령화로 어업도 예전 같지 않다"며 "밤에도 머물 수 있는 마을이 되어야 한다. 당장 시급한 것은 야간 테마다. 연인들, 가족들이 산책도 하고 즐길 수 있는 둘레길에 조명, 음악 등이 있어야 한다. 동백나무 숲도 정말 좋다. 동백나무 사이로 벤치도 만들고, 바닷길도 만드는 등 특색 있는, 오래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변모해야 한다"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돌산도 끝자락 금오산의 기암괴석 절벽에 자리한 우리나라 4대 관음기도 도량 향일암. 일출로 유명한 이곳은 2009년 화재로 소실됐다 2012년 복원됐다.

찾아오는 길

▶ 승용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서해경부고속도로 → 천안논산고속도로 → 순천완주고속도로 → 엑스포대로 → 거북선대교 → 돌산읍 → 임포마을(향일암)

▶ 고속버스

센트럴시티터미널 → 여수종합버스 터미널(4시간15분) → 시외버스터미

널정류장(도보 3분) → 111버스 승차(1시간9분 이동) → 임포(향일암)정류장 하차

▶ 열차

KTX용산역 → 여수엑스포역(2시간40분) → 여수엑스포역-L정류장까지 도보이동(2분) → 111버스 승차(1시간6분 이동) → 임포(향일암)정류장 하차

“향일암과 어울리는 테마 바다 정비 나서 대대로 이어온 관광 명소 명맥 유지해야”

김경식 어촌계장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개발로 관광 명소의 명맥을 유지해야 합니다.”

김경식(58) 어촌계장은 '향일암 마을'인 임포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다.

향일암을 중심으로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했던 임포마을은 달라진 여수 풍경 속에 고민 많은 마을이 됐다. 엑스포를 전후로 관광 중심이 도심으로 이동하면서 관광업이 중심이 되는 마을이 어려워졌다.

빠르게 변하는 도심과 달리 정체인 마을은 김 계장의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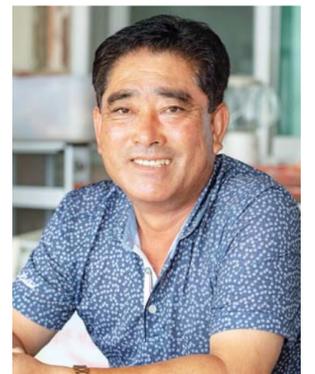
김 계장은 “우리 마을에 숙박업체가 10여 개 있는데 주말에 오히려 장사가 안 된다. 주말에는 시내권에서 행사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간다”며 “도심 중심이 되면서 스쳐 가는 관광지가 됐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의 호주머니도 쉽게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열악한 어업 환경은 고민을 더 한다.

김 계장은 “고령화로 어업이 예전 같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을 많이 한다. 어획량도 예전 같지 않다. 어구로 잡은 고기와 미역을 직접 팔려서 노점을 하는 주민도 있는데 양이 많이 줄었다. 또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구매하시기 때문에 판매도 잘 안 된다”고 언급했다.

결국 관광업의 재부흥이 이곳 마을의 숙제다. 지역 관광 명소의 명맥을 이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다.

김 계장은 “여수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둘레길을 구상하고 있다. 스카이 워크 길



은 걸 설치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사람들이 머물러야 하는데 밤에 향일암에 올라가도 조명이 없다. 밤에 망망대해를 볼 수도 없으니까 주로 아침에 올라간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향일암과 어울릴 수 있는 테마, 바다 정비 사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발이 훼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김 계장은 “자연을 훼손하면서 개발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시에서 난개발도 우려하는 데 좋은 자연경관을 놔두고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다. 관광객이 더 편하게 보고 갈 수 있어야 한다. 또 노후화된 집, 건물들을 개보수해야 관광객들에게 좋은 숙박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내가 이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지내게 될지 모르지만 대대로 중요한 관광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관광지를 보전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의 건강한 만남과 상호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전남남도 지정 기관인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과 도시가 건강하게 만나 상호 발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 직거래를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에 귀어·귀촌하는 도시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전남 어촌의 질 높은 특산물을 위생적으로 제조·가공하여 만든 상품을 도시민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도시민 누구나 전남 어촌을 찾아 맛있는 먹을거리를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구경할 수 있도록 관광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센터는 그 외에도 1사1촌 협약 등 전남 어촌과 기업 음식점 등과의 상호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062-220-0583-0514)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임 광 희